

SM, 4Q 영업이익 YoY 70% 증가로 어닝 서프라이즈

- 음반판매 및 콘서트 증가로 전 사업부문 고른 성장세 지속
- 매출 2,564억원, 18%↑·영업익 252억원,70%↑
- NCT DREAM·레드벨벳 등 음반판매량 기록 경신 / NCT·슈퍼주니어 등 콘서트 35회 진행
- "올해 상반기도 개선세 지속" 에스파·샤이니 정규앨범 및 콘서트 개최 순항 지속

에스엠이 지난 4분기 음반 판매 및 콘서트 증가로 전 사업부문에서 고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에스엠은 20일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 증가한 2,564억 원, 영업이익은 70%증가한 25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순이익은 전년 동기 일회성 수익으로 인한 역기저효과 발생으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90억 원을 기록했다.

별도기준 매출액은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재개되며 전년 동기보다 26%증가한 1,511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외형증가로 인한 영업레버리지 효과로 전년보다 73%증가한 244억 원을 기록했다.

NCT DREAM과 레드벨벳 등의 음반판매량이 자체 기록을 경신하는 등 호조를 보였고, 국내외에서 NCT 127, NCT DREAM, 슈퍼주니어 등의 콘서트가 35회 진행되는 등 콘서트 매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지난 2021년 4분기 자산 매각으로 197억 원의 일회성 수익이 발생하면서 역기저효과로 53% 감소한 93억 원을 기록했다.

엔데믹으로 콘서트와 팬미팅 관련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도 고르게 성장했다.

드림메이커의 매출은 207% 증가했고, 일본자회사와 SM Life design 등의 선전으로 주요 종속법인의 매출은 전년보다 16% 증가한 1,363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SM의 음반·음원 및 콘서트 수익 개선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슈퍼주니어와 예성의 정규앨범과 GOT the beat의 미니앨범, NCT 127, 키의 리패키지 앨범이 1분기에 발매됐고, 2분기에는 에스파와 샤이니 등의 정규앨범과 NCT의 유닛 미니앨범 발매 등이 예정돼 있다.

또 동방신기와 NCT DREAM의 콘서트가 50회 에스파의 일본 콘서트가 10회 진행될 예정이고, 그 외 NCT, 보아, 키, 레드벨벳, 태연 등의 콘서트도 줄지어 개최될 예정이다.